

되돌아보는 6월민주항쟁의 의미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정치학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권위주의체제로부터 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통상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일대 전환으로 평가된

다. 물론 6월항쟁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세력 주도의 정부 수립에는 실패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결과 권위주의세력의 영향력은 여전히 온존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평가는 상당 정도 절하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항쟁은 새 정부의 등장이 실질적으로 아래로부터의 국민 의사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민주화 이행을 가능하게 했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로부터 16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6월 민주항쟁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그 의미가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근대화 또는 근대적 발전이라는 견지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근대화란 단순히 산업화만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해방 직후의 국가형성,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

이라 할 수 있는데, 6월항쟁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광의의 의미의 근대화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한국사회의 근대적 발전 속에서 6월항

쟁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결핍된 한국의 근대화

익히 아는 바와 같이, 해방 직후 남한 국가의 형성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냉전 심화의 상황 속에서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위로부터 반공체제가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국가 형성의 이 같은 성격으로 인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은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제약되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의 반공독재와 이에 뒤이은 박정희 개발독재는 반공과 경제발전의 기치 하에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지체시켰다.

즉 해방 이후 반공국가의 형성과 이에 바탕을 둔 반공독재 및 개발독재의 전개는 한국사회의 근대화를 '민주주의가 결핍된 근대화'로 만들었던 것이다.

물론 미군정에 의해 자유민주주의의 제도가 주어질 바 있었고, 4·19혁명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최초의 아래로부터의 계기를 제공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의 본격적 전개를 야기시켰던 것은 60~70년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뒤를 이어 마침내 1987년에 분출했던 6월항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6월항쟁은 위로부터 그 제도만이 형식적으로 주어졌을 뿐, 냉전과 권위주의로 인해 아래로부터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지 않았던 한국적 상황에서 진정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민주혁명적 계기라 할 수 있다. 또한 6월항쟁은 한국사회의 비민주적·물량적 근대화가 비로소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6월항쟁은 한국에서 비로소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에 따라 민주주의적 근대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던 계기라 할 수 있다.

6월항쟁, 민주주의적 근대화의 계기

그러나 6월항쟁이 갖는 이 같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행 이후 그것이 기대했던 만큼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왔던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6월항쟁이 비록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만들었지만 그 이행의 결과는 '보수적 민주화 이행'에 그쳤다는 점이다. 그것은 당시 양 김씨의 분열에 따른 민주화운동진영의 분열로 인해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구(舊) 권위주의세력이 합법적으로 집권하게 됨으로써 권위주의 유산의 실질적인 청산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민주화 이행이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에 그침으로써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이어

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우리는 민주화 이행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정치, 전면 등장 속에서 노동의 정치참여 또는 진보적 정치세력의 제도권 정치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반공주의에 의해 구조화된 채 보수세력 또는 보수적 중도세력만이 제도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반쪽의 보수적 정치지형은 민주화 이행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실질적 민주주의로 진전 못해

1987년의 민주화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것이 경제적 민주주의를 크게 강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미 민주화 이행의 타협 과정에서부터 노동문제를 포함한 경제적 사안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행 이후에도 복지 등 경제적 민주주의의 문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오히려 어떤 점에서 경제적 민주주의의 문제는 경제적 세계화의 영향 속에서 더 악화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불평등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경제적 불이익을 강요받게 될 때,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화 이행 이후 16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6월항쟁의 의미를 되짚어본다면, 그것은 탈권위주의의 한국 민주주의가 비로소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전환적 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민주화 이행 이후의 민주주의의 커다란 발전으로 이어졌던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시점에서 되돌아보는 6월항쟁은 한편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수많은 헌신과 열정을 새삼 기억하게 만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후 역사 발전으로 제대로 이어내지 못했던 아쉬움의 감회 또한 함께 남긴다.

6월 난장을 준비하며

이혜경 6월난장 기획단 단장



난장? 아니, 이 무슨 전근대적인 용어인가? 명멸하는 온갖 화려한 네온사인인 공세 속에서 우리는 난장의 어의와 분위기에 매우 낯설다. 난장의 '난'의 의미는 실로 다양하다. '씩이 나고' '발자국이 나있고' '큰 인물이 나고' '쌀이 많이 나고' '시간이 나고' '맵시가 나고' 심지어 '아줌마, 여기 낫어요!' 물론 민속학적으로 난장이란 일정한 장날 외에 특별히 터놓은 장이다. 우리 선조들은 생산물이 많이 낫을 때 난장을 텃다. 짧게는 10여 일, 길게는 2개월간 축제를 열어 풍요로움을 서로 나누었다.

난장, 장날 외에 특별히 터놓은 장

난장이 열리면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몰려든다.

남사당패와 옛장수, 각설이와 탈춤패들도 함께 큰 축제의 판을 연다. 요컨대 난장의 '난'은 생성과 변화와 역동이다. 큰 손이 지배하는 장터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꿈꾸는 크고 작은 다양한 에너지의 공간이 '난장'이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니며 모든 이의 것이기도 한 난장.

그런데 왜 하필 6월 시청 앞 광장인가.

돌이키건대 이제 6월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이 한반도의 총체적 유산이 되었다. 이를테면 올해는 분단의 상처를 고착화시킨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며, 그 질긴 고난의 행로를 끊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3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또한 6월에는 민주주의의 정치적·제도적 함성이 울려 퍼진 87년 민주항쟁이 있었으며, 민주주의의 문화·감

성적 열정이 터진 2002 월드컵이 있었다. 몇가지 부분의 사실까지 더하여 6월은 그야말로 한반도 역사의 집약체이자 그 누구의 것도 아니면서 모든 사람의 것인, 매우 상징적인 결정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더욱이 뚜렷한 사실은 그 6월의 역사가 대체로 '시청 광장'을 중심으로 펼쳐졌다는 사실이다. 시청 광장은 때로는 권토중래의 군사적 공간이었으며 독재타도의 정치적 공간이었고 '오 필승 코리아'의 열정적 공간이었다. 만약 누군가 난장을 상상한다면 그 역사적 시공간으로서 6월의 시청 앞 광장만큼 적절한 것이 또 있겠는가.

6월, 시청광장 - 한반도 역사의 집약체

특히 지난 월드컵의 열기 이후에 촛불 시위가 있었고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이 세 가지는 상호 연관성이 없는 그저 우연적 사건들일 뿐인가. 그렇지 않다. 계기적 사건으로서의 우연이지만 2002년의 역사적 조건에서는 인과율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기계적이지 않을 뿐 상호 연관성은 존재한다. 수사로써 말하자면 '그야말로 사람답게 사는 사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덕목에 대한, 기울어진 역사의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되돌리건대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명명백백한 가치의 확인이 위 세 가지 사건에 공통으로 드리워져 있다. 촛불 시위와 대통령선거에 대한 이해도 그러하거나와 특히 지난 6월의 월드컵 열기는 수많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또 더러는 매우 위험한 국가주의적 오해에도 불구하고, 궁극에 있어 한반도에서의 삶이 그런대로 살아볼 만한 삶이라는 것을 감수성의 차원에서 열망했던 것이다. 왜곡된 현실의 압력에 의하여 비틀린 채 자폐의 밀실에 억압되었던 개인의 감수성, 그것이 폭발한 것이었다. 90년대의 뚜렷한 두 변화, 즉 민주화의 디디지만 착실한 진행과 대중문화의 다양한 확산 속에서 성장한 감수성의 혁명이 월드컵 광장에서 벌어졌다.

축제의 대중화, 또는 대중의 참여에 의한 축제. 이

언술은 대체로 자유로운 공간이 거리에 만들어지고 문화적 기획을 가진 대중이 스스로 그 공간을 창조하고 일반시민이 자유롭게 구경하고 즐기는 그림을 예측케 한다. 이를 일컬어 난장이라 부르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양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다. 거칠게 표현하되 소규모의 수많은 난장들을 수렴하는, 그 수많은 개별아를 총론으로 집중하는 획기적인 예술도 아울러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늘 나타나는 역사성이 탈색된 무오류의 민족주의식 이벤트는 사절이다. 동서양의 화합이니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니 하는 공허한 수사학을 채우기 위해 피상망치한 디자인의 한복을 입은 무용수를 뛰어들게 하고 그 위로 깜짝 놀라게 하는 효과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화학불꽃이나 평평 터트리는 국가주도형의 낡은 깜짝쇼는 더욱이 아니다.

낡은 깜짝쇼가 아닌 축제의 절정 있어야

직사각의 광화문보다 좀더 개방적인 부채꼴의 시청 앞 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 상징적 공간을 하나의 무대로 삼고 주위의 빌딩까지 무대장치로 활용하는, 좀처럼 잊을 수 없는 2003년의 황홀한 기억! 그림으로써 한반도가 그나마 살 만한 곳이며 그러나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아직도 더 많이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감수성의 짜릿한 예감으로 확인하는 숨막히는 오르가즘을 준비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젊은 세대의 문화적 커뮤니티의 광장 진출, 87년 민주항쟁 이후 대학가와 민주 공간에서 펼쳐진 다양한 프로그램과 90년대 이후 흥대 앞 문화를 중심으로 펼쳐진 도발적 열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양상들, 그리고 진보적 문화예술의 흐름 속에서 성취해낸 알찬 예술적 과실들. 그 모든 것이 한 데 어우러지는 6월의 시청 광장,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6월 난장'이라고 부른다.

6월 난장은 어떻게 꾸며지는가

오는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시청앞 광장에서 6월항쟁 16주년과 월드컵 1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시민축제 6월난장-오 피스 코리아(Oh Peace Corea)가 열린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한국방송공사(KBS),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하고, 여러 문화·시민단체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참여한 '6월난장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이 축제는 평화와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정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시대를 여는 광장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각종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제안한 프로그램을 반영한

이 행사는 제안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시민 참여를 통해 구성되고 수행하는 형식으로, 출발부터 새로운 문화축제 형식을 지향하고 있다. 개막 첫 날에는 평화의 주제를 담은 화가 임옥상씨의 식전퍼포먼스행사와 개막 퍼포먼스 등에 이어 전인권, 노찾사, 안치환씨 등이 참여하는 평화와 미래 콘서트가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2002월드컵의 감동을 재현하기 위한 대표팀 평가전과 결합한 광장응원과 불꽃놀이가 이어져 다시 한번 감동과 기쁨을 재현하게 된다.

행사 일정

6월 7일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서울 시청 광장	준비	시민 참여 난장									
		열린 마당 - 난장 소무대									
		디카를 들어라									
서울 시청 광장	준비	바그다드 카페 & 댄서의 순정									
		6월을 달려라! - 레저 커뮤니티 난장									
		6월 기쁨 장터-Peace Market									
								식전 · 개막 퍼포먼스	6월 난장 콘서트	Save Children	
6월 8일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서울 시청 광장	시민행진 도착	시민 참여 난장									
		열린 마당 - 난장 소무대									
		디카를 들어라									
서울 시청 광장	시민행진 도착	바그다드 카페 & 댄서의 순정									
		6월을 달려라! - 레저 커뮤니티 난장									
		6월 기쁨 장터-Peace Market									
									축구	한국대우루과이	
								KBS			
								열린 음악회			

주요 행사

▶ 7일

1. 식전 퍼포먼스

1) 대형 조형물 '풍경(風聲)' 설치

임옥상씨가 시민들과 함께 도로 바닥에서 여러 형태의 풍경을 끈에 매달고 마지막에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끌어올리면서 나무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한다. 나무 밑에 선풍기와 조명을 설치하여 풍경 소리가 빛과 어우러지게 하고, 또한 풍경소리와 함께 판타지적 컴퓨터 음악도 선보일 예정이다.

2) 시민 참여 퍼포먼스 '평화의 천(天)'

임옥상과 시민들이 완성한 Oh Peace Corea 통천을 대형 애드벌룬을 이용해 하늘 높이 날리는 퍼포먼스이다.

3) 솟대 퍼포먼스

최병수씨가 시민들과 함께 솟대를 만드는 퍼포먼스이다.

2. 개막 퍼포먼스 - 해원 상생 '여성의 품으로!'

우리나라 전통의 해원 상생 판굿을 현대적인 감각의 무용과 음악으로 재해석하여 전쟁과 폭력에 의해 희생된 혼령을 위로하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하나됨을 선포하는 의미의 퍼포먼스이다.

3. '6월 난장 콘서트' - 평화와 미래 콘서트

전인권 · 안치환 · 윤선애와 노찾사의 노래, 이애주씨의 춤, 그리고 어린이들의 평화에 관한 노래 합창, 영상을 통한 미술작품 전시 등으로 꾸며진다.

4. 미디어 아트 - 아이들을 구하라!

정운수씨가 슬라이드, 이미지 영상, 음향, 빛(조명), 시청 광장 주변의 건물들의 형상 등을 이용하여 전쟁 중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구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평화를 호소한다.

5. Oh Peace Corea 대형 벽화 그리기

6월항쟁, 월드컵, 촛불시위 등의 내용을 담은 평화를 상징하는 밑그림을 붙인 길이 10m, 높이 2m의 대형 스탠드를 시청 분수대 옆에 설치하고, 물감, 색종이, 크레파스 등을 준비해 시민들이 직접 대형 벽화를 완성하는 행사이다.

▶ 7~8일

1. 6월 기쁨 장터 - Peace Market

매주 토요일에 홍대 앞에 서는 예술시장처럼 생산자가 직접 자신이 제작한 물건을 들고 나와서 판매하는 장터이다. 주로 소품들, 즉 장신구, 수첩, 지갑, 작은 그림 등이 판매될 예정이다.

2. 음식 장터

(사)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이 준비한 다양한 음식들을 판매하는 장터가 마련될 예정이다.

3. 난장 사진전

해방 이후부터 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까지의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담은 사진 그래픽을 길이 85m, 높이 2.4m 크기의 대형 구조물에 전시할 예정이다.

※사정상 위의 프로그램들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편집부)